



홀드를 향해 뻗는 손

17일 상무공원 인공암벽장에서 열린 '골핑과 함께하는 제23회 광주시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대회'에서 김효정(서울14a클럽)이 암벽을 오르고 있다. 남자 일반부에서는 김홍일(17·광주수완고2), 여자 일반부에서는 한스란(19·송실대)이 각각 1위에 올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로페즈, 부상 투혼 3승 챙겼다



2회 수비서 스파이크에 오른쪽 뒤꿈치 찍혀
10 탈삼진 호투... 최희섭·안치홍 홈런 신고

‘특급용병’ 로페즈가 부상투혼으로 시즌 3승째를 수확했다.

KIA 타이거즈의 로페즈가 17일 무등야구장에서 펼쳐진 한화 이글스와의 시즌 5차전에서 뒤꿈치가 찢어지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7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며 한화전 2연패를 저지했다.

안치홍과 최희섭은 마수같이 홈런을 쏟아내며 8-1의 승리를 자축했다. 앞선 두 차례 등판에서 ‘완벽부’로 부활을 예고했던 로페즈는 세 번째 등판에서도 공격적인 피칭으로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괴력을 과시했다.

부상투혼이 돋보였다. 로페즈는 2회 초 고동진의 땅볼 때 1루 베이스 커버를 들어갔다 스파이크에 찍혀 오른쪽 뒤꿈치가 3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테이핑을 한채 7회까지 마운드를 지켰다. 방어율은 1.57까지 내려갔다.

로페즈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좌완 심동섭과 박정태는 추가 실점 없이 승리를 마무리 지었다.

KIA 타자들의 고공행진도 계속됐다. KIA는 홈 6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장·단 13안타를 몰아치며 팀타율을 0.304까지 끌어올렸다.

1회말 2사에서 이범호와 최희섭이 나란히 볼넷을 골라 출루에 성공했다. 나지완과 김상현의 연속안타가 터지면서 KIA는 첫 공격에서 2점을 만들었다.

2회에도 이용규·김선빈·이범호가 연달아 안타를 때려내며 한화 선발 장민제를 일찌감치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3·4회에는 안치홍과 최희섭의 홈런 쇼가 펼쳐졌다.

3회말 1사에 타석에 들어선 안치홍이 유원상의 143km짜리 직구를 잡아당겨 시즌 첫 홈런을 터뜨렸다. 4회에는 최희섭이 유원상의 포크볼을 공략해 비거리 130m의 장외홈런을 날리며 본

격적인 홈런포 가동에 들어갔다.

16일 경기에서 평범한 내야 플레이를 놓치며 3·4패의 빌미를 제공했던 김선빈은 2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전날의 부진을 만회했다.

하지만 KIA는 승리에 도 불구하고 나지완의 비활골잡이라는 약재를 만났다.

지난 9일 두산 이해천의 공에 왼쪽 발목을 감타당했던 나지완은 이날 1회말 2사 1·2루에서 우전안타로 팀의 첫 타점을 기록했지만 김상현의 후속타 때 3루로 진루하다 왼쪽 발목을 접질렀다.

김주형과 바로 교체돼 병원으로 이송된 나지완은 CT촬영 결과 좌측 비골 골절 진단을 받으면서 당분간 자리를 비우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 진흥 꺾고 3연승 질주

고교야구 주말리그

광주일고가 고교야구 주말리그 3연승을 달렸다.

광주일고는 지난 16일 군산월명구장에서 열린 진흥고와의 경기에서 7-4로 승리를 거두며 주말리그 3승째를 수확했다.

1-3으로 뒤지고 있던 6회초 정경운·박정섭의 2루타 2개를 포함 3개의 안타로 3-3 동점을 만든 광주일고는 7·8회 상대의 실책을 더해 각각 2점씩을 보태며 7-4로 3연승을 챙겼다. 진흥고는 이날 패배로 2승2패를 기록하고 있다.

동성고는 순천 효천고와의 대결에서 화려한 타격을 선보이며 11-0으로 5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동성고 전적은 2승1패가 됐고, 효천고는 3연패에 빠졌다.

1회부터 동성고가 대거 7점을 뽑아내며 승기를 잡았다. 2사에서 박승진이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연속 안타가 나

오면서 선취점을 기록한 동성고는 5연속 사사구로 손쉽게 추가 득점을 올렸다. 윤준식의 2타점 적시타까지 나오면서 7-0.

2회에도 김동범·전세민이 3루타를 터트리는 등 5개의 안타와 사사구 3개로 4점을 더하며 콜드게임승을 장식했다.

관정란에 휩쓸려 있던 화순고는 군산 상고를 10-0으로 누르고 주말리그 첫승을 올렸다.

4회까지 삼자범퇴로 부진했던 화순고 타선인 5회 이경훈의 2루타를 시작으로 공세에 들어갔다. 상대의 연속실책까지 더해 2점을 뽑은 뒤 이상우의 투런포로 4-0을 만들었다.

9회초에도 문의서의 투런포가 가동되면서 화순고는 10-0으로 승리를 거뒀다. 화순고의 일격을 받은 군산상고의 전적은 2승1패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메이저리거 추신수·최현 나란히 2호포

한국인 메이저리거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한국계 최현(23·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이 나란히 시즌 2호 홈런을 쏟아냈다.

추신수는 1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홈경기에서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홈런을 때렸다. 클리블랜드는 볼티모어를 8-3으로 이기고 2연패 뒤 2연승을 달렸다.

최현(경기 포구)도 일리노이주 US 셀룰라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원정경기에서 8번 타자 겸 포수로 선발 출전해 스티리얼 웨지포를 터뜨렸다. 에인절스는 화이트삭스를 7-2로 완파했다.

/연합뉴스

서석초 야구, 동우회장기 화정초 꺾고 정삼

서석초가 제7회 천안흥타령기 예선 겸 제18회 동우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서석초는 지난 14일 본래리야구장에서 열린 화정초와의 결승전에서 3-1로 승리하며 대회 우승컵을 가져갔다.

결승에서 홈런 하나를 포함 3개의 안타를 터뜨린 서석초 변인석은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고, 팀의 승리를 지킨 투

수 한준수는 우수투수상을 받았다. 우승을 이끈 서석초 양윤희 감독은 감독상을 수상했다.

또 이번 대회에서 2승을 챙긴 화정초 정영웅에게는 감독상이 돌아갔다.

우승과 준우승팀인 서석초와 화정초에게는 오는 6월4일 개막하는 천안흥타령기 전국대회 진출권이 주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심현화 프로 데뷔 첫 우승

KLPGA 롯데마트 오픈

심현화(22·요진건설)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롯데마트 여자오픈(총상금 5억원)에서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했다.

심현화는 17일 제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파72·620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선두권 선수들이 무너지고 2타를 줄여 함께 12언더파 276타로 역전승을 거뒀다.

2008년 6월 KLPGA 정회원인 된 심현화는 그동안 정규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었으나 올해 처음 열린 대회에

서 첫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1억원을 받았다.

3라운드까지 선두였던 양수진(20·텐스)은 3타를 잃고 공동 3위(9언더파 279타)로 떨어졌다.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2위에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심현화는 전반에 1타를 잃었지만 양수진도 2타를 까먹는 바람에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후반에 들어간 심현화는 10번홀과 11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고, 13번홀(파4)에서 8m 거리의 버디퍼트를 홀에 떨어뜨림으로써 기선을 완전히 제압했다.

/연합뉴스



양수진도 13번홀에서 버디로 응수했지만 15번홀(파5)과 16번홀(파4)에서 연속 보기를 적어내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타수를 지킨 강민주(21)가 단독 2위(10언더파 278타)에 올랐고, 지난해 상금왕인 이보미(23·하이마트)와 임지나(24·한화) 등 5명이 3위 그룹을 형성했다.

/연합뉴스

해밀턴, F1그랑프리 페넬 독주 저지

상하이 서킷 5.1초차 우승

루이스 해밀턴(영국·맥라렌)이 제바스티안 페넬(독일·레드불)의 5연승을 저지했다.

해밀턴은 17일 중국 상하이의 상하이 인터네셔널 서킷에서 열린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 상하이 그랑프리에서 5.451km의 서킷 56바퀴(총 길이 305.066km)를 1시간36분58초226에 달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벨기에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고 나서 8개월 만에 우승의 기쁨을 맛본 해밀턴은 2위로 들어온 페넬을 5.1초 차로 제쳤다.

전날 예선에서 부진해 18번째로 출발한 마크 웨버(호주·레드불)가 3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저력을 발휘했고 지난해 상하이 대회 우승자 젠슨 버튼(영국·맥라렌)이 4위를 차지했다.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독일·메르세데스)는 선두에 31초 뒤진 8위로 들어와 승점 4점을 챙긴 것에 만족하게 됐다.

드라이버 부문 순위에서는 페넬이 68점으로 선두를 지켰고 해밀턴이 47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팀 순위를 보면 레드불이 105점으로 1위, 맥라렌이 85점으로 2위다. 시즌 4라운드인 터키 스타탄을 대비해는 5월8일 결선 레이싱가 펼쳐진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초슬림!!

스킬과 망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격 파괴 50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광주 등산장비의 자존심

백두산악

■ 지하철 : 김대중 컨벤션 역 3번출구에서 공황방면 600m 위치
 ■ 버 스 : 19, 20, 38, 62, 73, 160, 1000 서창입구 정류장 하차

직원 수시 모집

■ (주)백두산악 광주아울렛점

문의/전화 ☎ (062)267-2562

♣ 기업체 판촉물 상담환영 ♣